여러종교 융합…민중 깊이 침투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㉓

중국불교

수·당대 교학 활짝…달마대사 선불교 발흥

6세기 삼론·천태등 각 종파 확립
송나라 이후 대장경 간행 널리 전파
제불보살중 관세음보살과 친숙
문학·조형미술등 중국문화 불교영향 지대

중국의 불교사는 매우 복잡하다. 그 첫 전래시기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전설에 의하면 기원후 1세기경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꿈속에서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귀인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는데, 깨어나 알아보니 그 사람이 부처님이었다고 한다. 황제는 인도에 사절단을 보내 부처님 법을 가르쳐 줄 스님을 초빙해 왔다. 다른 설에 의하면 이미 기원전 3세기경에 인도북방 서역을 통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다고도 하며 전한(前漢) 애제(哀帝) 1년을 초전(初傳)으로 보기도 한다. 대략 기원 전후 무렵 전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불교가 전래될 무렵 중국은 벌써 고도의 문화를 확립하고 있었다. 한무제(漢武帝)는 공자의 가르침(儒敎)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사회를 안정시켰고, 민간에서는 노자의 사상(道敎)이 널리 퍼져 있었다. 공자와 노자는 기원전 6세기에 살았고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리트스 등과 동시대 인물이었다. 유교는 초월적 세계보다는 사회질서 규범을 중시했고, 도교는 불교처럼 세계의 비현실성을 일깨웠다. 이를 호접몽(胡蝶夢)으로 표현한 장자의 유명한 비유가 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기분 좋게 날아다녔다. 꿈이 깨자 자신이 나비꿈을 꾼 장자인지, 지금 장자가 된 꿈을 꾸는 나비인지 알 수 없었다."

초기의 불교전도시대에 인도와 중국의 학승들이 여러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인에게 불교를 전하는 한편 그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교와 도교사상을 확립하고 있던 지식인들은 불교사상의 독자성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서 전설상의 황제(黃帝)나 노자의 가르침을 빌어 이해하고자 했다. 이렇게 중국 고유의 사상으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한 격의불교(格義佛敎)가 한동안 성행하였다.

5세기 초 구마라습이 서역을 경유하여 장안(長安)에 도착한 후 여러 대승경전을 한역(漢譯)하여 불교 고유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번역된 경전이 정리되면서 논(論)의 연구가 진척되고 여러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526년에 보디다르마(達摩大師)가 중국에 들어왔다. 불교진흥에 힘쓰고 있던 양(梁) 무제(武帝)가 달마대사를 청해 가르침을 받고자 했으나, 대사는 화려한 사원과 수많은 승려 등 외모적인 겉치레보다 진리를 올바로 증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전에서 물러나와 수도에 힘썼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9년간 면벽(面壁)참선 정진을 했다고 한다. 그는 중국 선불교의 초조가 되었다. 선(禪)은 중국어로 찬(Ch'an)이라고 발음되는데, 근대에 와서 일본에 의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서구에서는 일본식 발음인 젠(Zen)이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수·당(隋·唐)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정치가 통합되면서 문화가 번영하였다. 중국불교도 이때 황금시대를 구가했다. 이 시대는 불교 본래의 모습에 대한 중국인의 이해와 실천이 실현된 시기였다. 삼론(三論), 천태(天台), 화엄(華嚴), 법상(法相), 밀교(密敎), 율(律), 선(禪), 정토(淨土) 등의 종파가 확립되었다.

수·당(隋·唐)시대 이후 한때 폐불이 있어서 여러 경전이 소각되고 종파도 중절되었으나 실천에 전념하는 정토교와 선종 그리고 민간신앙에 동화된 밀교가 번창하였다. 그중에서도 선종은 중국 특유의 불교로 발달되고 탁월한 승려가 배출되어 그 가르침이 계승되어 감과 동시에 고승들의 어록이 편집되었다. 또 선종의 사원에서는 자급자족적인 생활규정이 생겨 그것을 청규(淸規)라고 했다. 송(宋)나라 이후 대장경이 출판되고 경전이 간행됨으로써 불교사상이 지속적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한편 불교는 중국인들의 조상숭배사상과 도교적 민간신앙과 타협하고 그것들을 흡수하였다. 가족의 중요성이 체질화된 중국인들에게 출가(出家) 독신생활은 그리 긍정적으로 비쳐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졌지만 직접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일은 드물었다. 따라서 일반 승려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농민 출신들이 많았다. 사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다. 때때로 가난한 서민들이 어린 자식을 사원에 파는 경우도 있었다. 체계화된 유교식 교육을 받은 인재를 등용하는 관료체제가 확립된 중국사회에서 출세를 지향하는 지식인들에게 출가 수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출가제도는 중국인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불교가 외래종교라는 사실도 자존심 높은 중국인들에겐 약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불교의 초월적 인식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유교의 혁신을 가져온 신유학(Neo-confucianism)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불교는 민간의 일상생활에 깊숙히 침투해 갔다. 중국의 문학과 조형미술은 불교를 모르면 이해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받았다. 대승불교의 제불(諸佛)과 여러 보살 중에서 민간에 가장 친숙한 인물은 관세음보살이었다. 여성화된 자애로운 모습을 띤 이 자비의 화신상을 중국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다.

서구 유일신(唯一神) 신앙의 배타적 성격과는 달리, 중국에선 여러 종교가 쉽게 혼융되었다. 유·불·도의 3교 융화가 활발히 논의되었고, 실제로 사원내에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산신각(山神閣)이 세워진 사원이 많았다.

가장 유명한 불교소설인 「서유기(西遊記)」는 손오공과 삼장법사 일행이 불경을 구하러 중국에서 서쪽으로 여행을 떠나 겪게되는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이다. 소설이 쓰여진 연도는 정확치 않지만 대략 16세기경으로 추측된다. 삼장법사와 동행하는 원숭이와 말과 돼지는 법사의 분신들로 각각 지성, 영성, 감성을 상징한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불경을 구해 돌아오지만 그 경전들은 모두 백지였다. 이것은 어쩌면 지고한 진리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不立文字)을 상징하는지 모른다.

멀리 인도에서 이룩된 불교는 인도의 온갖 문화를 수용, 포용하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또 중국으로 전해진 다음에는 중국의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와 접촉, 융화되어 풍부하고 다양한 중국적인 불교문화를 이룩하였다. 그 문화는 한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었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달마대사의 '선' 불교 전파이후 수·당대에 이르러 크게 성행됐다. 사진은 달마도.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김 연 호 〈제천진주동물병원장〉

우리 목청관(牧淸館) 뜨락에 여명이 찾아드는 새벽이면 서실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께 청수(淸水)를 올리고 삼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17년 전 큰 아이의 첫돌기념으로 모셔온 탄허스님의 〈신화엄경합론〉을 아침마다 한 시간씩 읽기 시작한 것이 아침예불의 첫출발이 된 것이다.

당시 난 동물병원업과 함께 신생 불교청년회와 불교학생회를 지도하는 일로 항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제천에서의 5년여 불교활동과 진주에서의 대학 4년까지를 합쳐 9년이란 세월을 진정한 나를 위한 불교보다는 막연히 불교를 위한 불교를 하는 듯한 오만도 있었던 듯하여 잠시 뒤돌아보게 되었다.

물론 불교운동에 앞장서는 지도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 자신이 먼저 불법을 익히고 철저히 수행하는 자세가 배어나올 때 이것이 바탕이 되어 이웃과 친지들을 삼보에 귀의케 하는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랴 싶었다.

그 첫 실천으로 아침예불과 불경읽기를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고단하고 잠이 모자라는 아침이라도 예불을 모시지 않고는 개운치 않고 하루 생활리듬이 깨어지는 듯하여 지금까지 여간해 거르지 않고 있다. 나의 불자된 도리로 모든 이웃의 평안과 함께 우리 가정의 화목과 건강과 마음착함, 또 나에게 책임 지워진 동물들의 병고에서의 회생과, 스스로의 자비심 발현을 위하여.

이렇게 근 20년을 계속하자 이젠 여러 불자님 앞에 나섬에 덜 부끄럽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듯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무언가 굳은 신념이 자리잡혀가는 듯하여 늘 불보살님께 감사하고 있다.

또한 애당초 나를 삼보전에 귀의케 하여 준 김상현 선배님께도 늘 감사하게 된다. 김선배님은 25년전 나를 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입회케 이끌어 주었다. 불교는 믿음으로 자기를 일으키고, 사물에 대한 안목도 세우면서, 알뜰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으며 직접 진인다운 삶의 길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분이 김선배였다. 이 고마운 뜻은 지금도 나의 생활에 나태가 끼어들 때마다 채찍이 되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는 자격을 얻어 다시 포교의 장으로 나가고자 85년에 제1회 조계종 전법사 품수를 영광스런 마음으로 받았으나 곧 혼미한 종단의 행정은 법복 한번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는 실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않고 제천불교거사림회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분들께 자비심을 바탕으로 더 참되게 생활하도록 원력을 세워주고자 했다.

난 이를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조금이나마 무소유정신을 실천코자 15년 동안 모아온 문화재 3백여점을 국립청주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 결단으로 이웃들과 친지들, 우리 거사림회원들에게 무언가 참다운 삶의 길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러 불자들이 뭔가 새로운 불교운동을 해보자는 뜻이 있는 것 같아 좋은 과보로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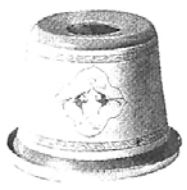
이때 고맙게도 일부러 우리 목청관을 찾아주신 남지심선생과 박광서교수님은 불교운동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불교인의 새로운 신앙갖기, 승가에 도움을 주는 불자, 공부하는 불자, 이 세상 구석구석에 꼭 필요한 일을 찾아 나서는 불자가 되자는 결사운동의 새 장을 우리는 선우라는 단체를 통하여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신 것이다. 난 이 신선한 결사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 제천에도 1백여 선우도반과 함께 지회를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제천 선우들은 항시 보살심을 놓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은누리에 자비심이 하나하나 미치게 돔소 실천하고 있는 남지심·박광서 두 분 공동대표와 여러 선우도반들처럼 이렇게 희망을 주는 불자가 되자고 오늘도 그 원력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다.

"꼭 필요한 불자되자" 선우운동 동참

아침예불 20년…문화재 3백여점 박물관 기증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 좌욕기 "탄 생"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의 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요법이 한곳에서 동시에 발휘되도록 집약시켜 이를 특정부위에 집중적으로 찌으로서 질환의 치료 예방 효과가 크고 빠르게 개발된 가정용 좌욕 찜질 요법기 입니다.

당신의 건강진단서,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자궁에 가끔씩 기분 나쁜 증상이 일어난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의 요법으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부인병, 냉·대하, 빈혈,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질수축작용, 염증 및 혈액순환촉진, 배가 냉한사람, 성사가 싫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가슴 근삼제거, 갱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전,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 등

◎이상의 열거한 질병이 있는 분은 일단은 무조건 전통쑥좌욕기를 10~15일만 사용해 보십시요 그리고 그 진가를 알아해 주십시요 어느분이고 이 좌욕기로 내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그 효능을 확실하게 느끼실 것이며 설령 좌욕기 가격이 몇 백만원이라고 해도 이미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방치원에서도 일주일에 2~3번씩 가끔 사용하시면 뜻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암을 시침보냉때 호수감 증이 좌욕기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으로 꼭 넣어주십시요 자궁을 냉한 것으로 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주면서 청결하게 소독해주고 살균시켜주어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임신했을때 유산되는 일이 드물며 집에서 산모 스스로 산후조리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 징

1 좌대 열을 받으면 휘토기운을 받을 수 있는 휘토 분청자기로 만들었습니다
2 내열탕기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는 바이오 세라믹 도질로 만들었습니다
3 강화약쑥 티백100봉지(100일분)와 100% 순정품 휘토가루 100일분이 포함되었습니다
4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누구나 손쉽게 30분~1시간 이상 좌욕할 수 있어 편리하며,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전가족이 공동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5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 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6 보급가격이 효능 및 효율성, 품질의 우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전통쑥좌욕기는 "움직이는 황토방"이며 "이동식쑥찜질방"입니다.

치료원리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상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파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서 피부모공과 내분비선공을 열어 피부호흡 및 호르몬분비를 촉진함으로서 대사기능 증진과 혈액순환을 좋게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원균을 살균시켜 질병을 치유시킵니다.

◎가능한 가까운 지회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며 단, 미개설 지역의 경우 지회가 개설될 때까지만 구입신청을 받습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방법을 다 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히히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신경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위암, 위궁,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위탈,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마비,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꼽뜸, 피부미용, 시력증진, 임파선기성제증, 숨 단배 넣어 드시는 분, 정력강화, 각종 성인병예방 등

전국지회모집 (미개설지역)

전국 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문의 (지회신청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illegible] 301-1
전화 (0335)34-9490, 39-1906/야간(0342)706-3060
• 문의 (지회신청문의) 서울시 [illegible] 581번지(장시신가 5층)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남:553-0261~2 강북:994-3108 서초:508-3284~5 반포 597-7581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도봉:942-6430 종로:747-7033 노원:942-6430 마포 715-2062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칠곡:323-2598 광주(062) 동구:228-8544 대전(042) 중구:222-4966 전주(0652) 덕진구:75-6733 경남지역 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96)73-0089 울산:(0522)74-7536 경북지역 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경기지역 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평택:(0347)66-0049 용인:(0335)35-4298